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0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6월 1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최저임금 삭감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차별철폐 대행진

6월 마지막 주, 전국적인 차별철폐 대행진

최저임금 즉각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차별철폐 대행진이 6월 마지막 주간에 전국에서 진행된다. 대전과 충북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차별철폐 대행진 사업을 1주일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엉망진창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상효과가 사라지게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차별철폐 대행진의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즉각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대행진은 매년 진행되는 투쟁사업이지만 올해는 의미가 남다르다. 문재인 정권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가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까지 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며 취임 첫해 16% 인상했지만, 바로 산입범위를 늘려서 인상효과를 없앴다.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대로인 상황을 만들었다.

28일 대행진과 문화제, 30일 전국노동자대회

대전과 충북지역 모두 6월 25일(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집중적인 선전사업을 진행하고 28일(목) 대행진 및 문화제를 개최한다. 대전은 28일 18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충북은 28일 16시 청주시청 앞에서 모여 행진을 진행한다. 이어 30일(토)에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투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별철폐 대행진과 전국노동자대회에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6/25일 금속노조 전체 지회장단 수련회

금속노조가 6월 25일(월) 14시부터 전체 지회장단 수련회를 열어 7월 총파업과 조합원 상경투쟁 등 위력적인 투쟁을 결의한다. 4월 10일 중앙교섭 상견례, 12일 지부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달 넘게 진행해온 2018년 임단협이 진전이 없다.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올해 임금 동결 양보없다”며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다. 현대차의 노무관리가 금속노조 전체 임단협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투의 힘을 모아 노동배제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규탄 투쟁과 더불어 재벌적폐 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현대차 본사를 상대로 하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 주요 일정 ***

□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6/18(월) 14:00 서울 금속노조

□ **9차 중앙교섭 및 중앙집행위원회**
6/19(화) 14:00 서울 금속노조

□ **10차 지부교섭**
6/21(목) 15:00 대한이연